

3 월 22 일 주일, 가정 예배

기도(가족 중 한 사람)

찬송: 540 장(통 219)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말씀 나누기: 그리스도의 복음

본문: 갈라디아서 Galatians 1:11-12

(쉬운 성경) 11 형제들이여,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ESV) 11 For I would have you know, brothers, that the gospel that was preached by me is not man's gospel.

12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은 것입니다.

**12 For I did not receive it from any man,
nor was I taught it, but I received it
through a revelation of Jesus Christ.**

(설교 내용은 자녀와 대화를 하면서 나누어도 좋습니다.)

진짜가 아니지만 진짜와 비슷한, 유사한 가짜를 ‘짜통’이라고 부릅니다. 품질이 좋고, 기능이 좋으면 짜통도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짜통이 먹는 음식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플라스틱, 종이, 감사 등으로 만든 ‘가짜 쌀’이나 여러 화학 약품과 색소로 만든 ‘가짜 달걀’, 종이와 화학 약품으로 만든 ‘가짜 고기’는 몸에 해를 끼치고,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더 중요합니다.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은 우리를 더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요한복음 3:16 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빼면 복음은 ‘다른 복음’이 됩니다. 이 다른 복음은 우리를 위협하는 가짜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졌다”

복음이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졌다는 말은 ‘복음’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가려지고 숨겨진 것을 펼쳐서 보여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열어서 보여 주신 겁니다.

오늘 읽은 11, 12 절에서, 복음이 하나님의 계시이며,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말은 세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 1. 사람들의 학문적 지식과 논리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그리스, 헬레니즘)

예수님과 초대 교회는 정치적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대였습니다. 로마는 그리스의 철학과 문화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탈레스, 피타고라스 같은 학자들의 과학, 수학, 철학, 인문학, 기호학, 논리학에 대한 업적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학문적 지식과 논리로부터 복음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과학적 방법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을 것이며, 인간의 학문과 지성이 아무리 발달해도 복음을 대체할 순 없다는 겁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것입니다.

- 2. 종교적 교리와 형식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유대교)

인간의 모든 종교와 종교의 가르침으로부터
복음(기독교)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유대교로부터 기독교가 나온 것이 아니라는 의미도
됩니다. 처음부터 준비되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새언약’이었고, 그 복음(새언약)을 모든
인류에게 주시기 위해서 한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복음의 그릇으로
준비시키셨던 겁니다. 이런 관계를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2:22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Mark 2:22 And no one puts new wine into
old wineskins. If he does, the wine will
burst the skins—and the wine is**

destroyed, and so are the skins. But new wine is for fresh wineskins.”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복음’(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계시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옛날 가죽부대(옛 언약, 율법)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3. 권위있는 사람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 제자)

예수님은 복음을 들고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12 명의 사도를 세우시며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12 명이 복음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12 명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 바울은 사도들에게 배운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다른 권위있는 제자들에게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돌 던지던 사람들의 옷을 맡았던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열심이 출중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종교 재판(공회)에 넘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청년 사울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다메섹(다마스쿠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가던 길에, 밝은 영광의 빛을 보고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때 예수를 만납니다.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던 ‘죽은 예수’가 ‘부활’하여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다가 자기 앞에서 있는 예수가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가진 ‘아들 하나님’(성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청년 사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자, 같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사울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은 급하게 도망쳐서 아라비아로 갑니다.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마치 12 사도들처럼 3년간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들은 겁니다.

마무리: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인간의 학문과 지성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인간의 최고 학문이라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복음은 복음 자체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인간이 만든 종교적 교리와 형식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방 종교들 뿐 아니라, 심지어 유대교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옛 언약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준비되었던 ‘그릇’입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된 바로 그 ‘은혜’(헤세드)입니다.

복음은 권위있는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말 잘하는 사람 혹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말의 능력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에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결국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울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따위가 나의 믿음을 흔들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복음은 그보다 더 크고 힘이 있습니다. 질병의 불안 따위에게 나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복음은 내 영혼까지 살리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다같이) 기도

-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추게 하소서
- 환자들, 가족들, 의료진들, 공무원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하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